

한국 전통의 청백리를 통한 현대 공직 청렴교육 시사점

Some Implications to the Current Integrity Education for Officials using the Cases of Korean Traditional Cheongbaekri

이상호, 박균열
경상대학교 윤리교육과

Sang-Ho Lee(leejungto@empas.com), Gyun-Yeol Park(pgy556@daum.net)

요약

이 연구는 한국 전통의 청백리 사례를 검토해보고, 이를 토대로 현대 공직 청렴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청렴은 하나의 주제이자 덕목이다. 따라서 청렴은 가치교육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 전통 속의 청백리는 가치교육에서 말하는 인물 귀감(modeling)의 자격을 갖는다. 우리 전통 속에서는 많은 청백리 사례가 있는데, 이 연구는 청백리 제도가 정착된 조선시대의 전기 인물인 박수량, 중기인물인 이원익, 후기인물인 정약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은 공직을 수행하면서도 높은 벼슬에 있을 때도 자신의 지위를 탐욕의 도구로 악용하지 않았으며, 가산이 풍족하지 않아도 욕심이 적었기에 행복했다. 이들은 최초로 품은 마음 자체가 백성을 어여삐 여기고 스스로 일상 속에서 군자가 되고자 노력했다. 이외에도 많은 청백리의 모범들이 있지만, 이들의 행적은 현대 공직자들에게 큰 귀감이 된다. 향후 이와 같은 청백리 사례의 특징을 잘 발굴하여, 현대 공직자 윤리교육에 적용한다면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중심어 : | 청렴 | 청백리 | 청렴교육 | 도덕성 | 가치교육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ases of Cheongbaek-ri who were the model of integrity and clean official in Korean tradition, and tried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modern public integrity education. Integrity is a subject and a virtue in itself. Integrity can thus be seen in terms of value education. Cheongbaek-ri in Korean tradition qualifies as modeling in the value education. There were many examples of Cheongbaek-ri in our tradition. This study focused on Park Su-ryang, Lee Won-ik, and Jeong Yak-yong as representatives of each period during Josun Dynasty. Even at the high status, they had not abused their position for self-greed. With less greed, they had been happy even if they had been not rich. They initially tried to be a savior in their daily lives, with their own mind in vain. Their works would be a good example for public officials of modern Korea. In the future, if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of the public use this model as a material, it would be very effective.

■ keyword : | Integrity | Cheolbaekri | Integrity Education | Morality | Moral Education |

I. 서론

공직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

왜냐하면 공직자는 백성의 뜻을 받들어서 대리해서 이 해관계를 조정하고 또한 싫은 소리를 할 줄 알아야 하는 자(=尺)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접수일자 : 2019년 11월 05일
수정일자 : 2019년 12월 09일

심사완료일 : 2019년 12월 24일
교신저자 : 박균열, e-mail : pgy556@daum.net

등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자의 청렴은 중요한 덕목이다. 청렴한 공직자를 우리 한국의 전통에서는 청백리라고 일컬었다. '청백리(淸白吏)'란 말 그대로 '청렴하고'(=淸), '깨끗한'(=白) 성품을 지닌 관리(吏)라는 의미이다. 부연하자면 '청백리'란 '청렴결백한 관리로 성품과 행실이 올바르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고 곧고 깨끗한 관리'를 의미한다. '청렴(淸廉)'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아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깨끗한 마음씨를 가지고 자신의 맡은 바 직분을 다하는 것이다. '결백(潔白)' 또한 행동이나 마음씨가 깨끗하여 아무 허물이 없음을 의미한다.

청백리는 제도 명칭이기도 하면서 그 대상자를 지칭하기도 한다. 즉 청백리는 조선시대 선정을 위해 청렴결백한 관리를 양성하고 장려할 목적으로 실시한 관리 표창제도, 또는 염근리(廉謹吏: 청렴하고 근면한 관리)와 청백리에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도화 된 것은 조선시대였다. 그러나 전한(前漢) 이래 역대 중국과 신라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염리(廉吏: 청렴한 관리)를 선발해 재물을 주거나 관직에 제수하였다. 후손에게 청백(淸白: 청렴하고 결백함)의 관리가 될 것을 권장한다거나 세인들이 청렴결백한 관리를 칭송하였던 사실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기원전 168년(漢文帝 12)에 "염리는 백성의 표상(表象)이다."라고 하면서 200석의 녹을 받는 염리에게 비단 3필을, 200석 이상의 녹을 받는 염리에게는 매 100석당 비단 3필을 각각 수여하였다. 서기전 134년(漢武帝 1)에는 관리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군국(郡國)으로 하여금 염명(廉名)이 있는 자 1인씩을 천거하게 하여 관직을 제수하였다고 한다. 이후 청렴결백한 관리에 대한 우용(優用)·표창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청렴결백한 관리의 출현은 물론 기풍진작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후한대의 양진(楊震), 양대(梁代)의 서면(徐勉), 수대(隋代)의 방언겸(房彦謙), 송대의 두건(杜愨) 등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양진의 후손에서 대대로 청백리가 배출됨으로써 대표적인 청백리가문으로 추앙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국·통일신라·발해·태봉·후백제는 명확하지 않다. 고려시대의 경우에도 청백리를 우용, 표창하는 청백리제도가 언제 실시되었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1136년(인종 14)에 "청백을 잘 지키는 자(淸白守節者)를 서

용하였다."고 하였으며, 최석(崔奭)이 남경유수로 부임하는 유청(惟淸) 등 두 아들에게 "청백(淸白) 외에 다른 재물은 가문의 전하는 바가 아니하다. 경서 만권이 가보로 전하노니, 이를 나누어 부지런히 읽기를 바라노라. 세상에 이름을 빛내고 도를 행하여서 인군(人君)을 높게 하노라(家傳淸白無餘物 只有經書萬卷存 恣汝分將勤讀 閱 立身行道使君尊)."라는 시로써 청백리가 될 것을 장려하였다. 윤해(尹諧)·최영(崔瑩) 등의 청백함이 칭송되고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청백리의 기원을 유추할 수 있다[1].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된 것은 조선시대였다. 하지만 청백리가 언제 제도화되었는지, 언제 선발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대개 태조대 안성(安省) 등 5인을 청백리에 녹선한 이래로 이러한 기록들이 후대에도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시기엔가 제도화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1514년(중종 9) '청백리에 녹선된 자의 행적을 보면 시종(始終)이 한결같은 자가 드물다.'고 하고, 1552년(명종 7)에 생존시에 청백리에 선발된 자를 염근리(廉謹吏)라 불렀다가 사후에는 청백리라 불렀다. 선조대에는 청백리의 선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조선왕조는 개국과 함께 나라를 유지하고 사습(士習: 선비들의 풍습)을 일신하고 민풍(民風)을 교화하기 위해 『관자(管子)』에 적기된 예(禮)·의(義)·염(廉)·치(恥)의 사유(四維), 특히 염·치를 사대부가 지켜야 할 규범으로 권장하였다. 이를 볼 때 청백리 제도는 조선개국 초기부터 실시되고, 중종대 정비되었으며, 선조대 선발 절차의 규정 등이 보완되면서 정립된 것으로 생각된다[1].

청백리의 선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조선 전기에는 의정부·이조,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이조가 각각 왕명에 따라 경외2품 이상 관인에게 생존하거나 사망한 인물을 대상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2인씩을 추천하게 하고, 추천자를 육조판서가 심사한 뒤 국왕의 재가를 얻어 확정하였다. 청백리의 피선 자격은 법전에 명문화된 기록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통일된 기준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조선시대 선발된 청백리의 선발 사유를 보면 '청백'·'근검'·'경효(敬孝)'·'후덕(厚德)'·'인의(仁義)' 등의 품행이 제시되어 있다. 대부분이 국록 이외에 공가(公家, 국가)나 사가(私家, 개인)에

일체 폐를 끼치지 않고 깨끗하고 검소한 것을 생활 철학으로 살아간 인물이었다. 이점에서 ‘청백탁이(淸白卓異: 청렴하고 결백함이 뛰어난.)’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고 하겠다. 한편 청백리의 선발시 조선 전기에는 비교적 합당한 인물이 선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당파의 입장이 반영되는 등 변질되었다. 선발 인원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전거에 없지만 ‘많이 선발하면 그 가치가 떨어지고, 적게 선발하면 응당 선발되어야 할 인물이 누락된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선 전기까지는 최소한의 인원만을 선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 후기와 말기에 이르러 노론의 일당 독재, 외척의 세도정치 등과 관련된 관리 기강의 문란, 탐관오리의 만연과 함께 청백리가 선발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했다. 이런 탓으로 이 시기에는 거의 선발되지 못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생존시 엄근리에 선발된 인물에게는 본인에게 재물을 내리거나 관계(官階)와 관직을 올려주고, 적장자(嫡長子)나 적손(嫡孫)에게 재물을 주거나 관직에 등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숙종대(1675~1720)와 1746년(영조 22) 『속대전』 편찬까지는 2품관 이상의 천거로 특채하거나 적손 여부에 구애되지 않고 모두 처음으로 주는 관직의 의망(擬望: 관리 선발시 3인의 후보자를 임금에게 추천함.)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상전을 확대할 것이 천명되었다. 그러나 실제 대우는 실행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고 인사적체가 격심했던 것과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하였다. 영조대 이익(李瀾)이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조정에 매번 그 자손을 등용하라는 명령은 있으나, 오직 뇌물을 쓰며 벼슬을 구하는 자가 간혹 벼슬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모두 초야에서 굶주려 죽고 만다.”고 하였듯이 관직의 등용은 물론 경제적인 대우도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1].

전시기를 통해 청백리에 녹선된 수는 명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전고대방(典故大方)』에는 218명, 경종·정조·순조대가 제외된 『청선고(淸選考)』에는 186명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0여명 내외의 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고대방』에 실려 있는 왕대별 인원을 보면 태조대 5인을 시작으로 태종(8인)·세종(15인)·세조(7인)·성종(20인)·중종(35인)·명종(45인)·선조(27인)·인조(13인)·숙종(22인)·경종(6인)·영

조(9인)·정조(2인)·순조대(4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218인이 녹선 되었지만, 이 외의 왕대에는 녹선 기록이 없다[2][3].

전시기를 통해 그 제도의 운영상의 부침은 있었지만 청렴한 공직자는 존중받았다. 청렴한 공직자상은 대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자기 본분과 분수를 지킨다. 둘째, 옳은 방법에 의해 부(富)를 추구해야 한다. 재물을 옳지 못한 방법을 통해 모으기보다는 언제나 의로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를 추구하려고 노력한다. 셋째, 진리에 대한 깨끗한 마음과 그 진리대로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하고 즐길 수 있다.

오늘날 공직자들의 청렴 교육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상 존경받았던 인물 중 공직자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청백리의 삶을 제조명하여 오늘날 실정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전통 속의 청백리 사례를 통해 현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청백리 사례를 통한 청렴교육 시도는 사회인지이론 중 하나인 인물귀감(=modeling)에 해당된다. 인물 됴됨이를 그대로 배우는 것은 이론중심의 교육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때가 많다. 이 연구는 한국 전통의 공직자의 모범으로 박수량, 이원익, 정약용의 사례를 선정했다. 그들의 공덕도 고려하면서 시대적 균형을 참조했다. 조선 초기 인물인 박수량은 청렴결백하면서 의로운 기상을 지닌 관리였다. 그는 당시 권세가들의 불의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 당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조선 중기 인물인 이원익은 관리로서 실무 능력은 물론 인품, 도덕성, 청렴성까지 두루 갖춘 인물이며, 여섯 번이나 영의정을 지내고 청백리에 뽑힌 인물이었다. 조선 후기 인물인 정약용은 『목민심서』저술을 통해 지방관들의 청렴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박수량, 이원익, 정약용 중심으로 한국 전통 속의 청백리 사례를 다룬다.

II. 한국 전통 속의 청백리 사례

1. 박수량(朴守良, 1491[성종22년]~1554[명종9년])

박수량의 본관은 태인(泰仁), 자는 군수(君遂), 호는 아곡(莪谷)으로 시호는 정혜(貞惠)이며, 전라남도 장성 출신이다. 문아(文雅)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현손(賢孫)이고, 아버지는 종원(宗元)이며, 어머니는 이씨(李氏)이다. 어려서 호남의 선비 김개(金澗)의 문인이다. 향학 열이 대단하여 언제나 책을 끼고 다니면서 공부에 열중하였다. 1513년(중종 8) 진사에 합격하고, 이듬 해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광주향교(廣州鄉校)의 훈도로 취임했다가, 다음 해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로 옮겼다. 이어 전적(典籍)·예조좌랑·정언(正言)·충청도도사 등을 거쳐, 1522년에 지평(持平)이 되었다.

박수량은 사람됨이 곧으면서 신중했고 예법을 잘 지키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1525년 양친을 봉양하기 위해서 고부군수로 나갔다. 1528년에 부친상을 치르고 이어 헌납(獻納)·장령(掌令), 봉상시점정(奉常寺僉正)·사도시부정(司藥寺副正) 등을 역임하였다. 1531년 어머니 봉양을 위해 사성(司成)을 사퇴하고 보성군수로 나갔으며, 1534년 함경도 경차관(敬差官)이 되어 지방 관서를 순시하던 중, 안원보(安原堡)·권관(權管)·전주남(全周男)이 야인들에게 임의로 우마(牛馬)를 준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투옥시켰다. 1536년 승문원판교 겸 춘추관편수관을 역임하고, 이어 통정대부로 승진해 병조참지·동부승지 겸 경연참찬관, 수찬관(修撰官)을 지내고 좌승지로 옮겼다. 이어 가선대부로 승진해 호조참판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나주목사로 기용되어 찰리사(察理使)를 겸했고, 전위사(錢慰使)가 되어 명나라 사신을 전송하였다. 1537년 함경도관찰사가 되었다가 이어 한성부판윤·동지중추부사·공조참판·호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1539년 오위도총부부총관·예조참판 등을 지냈다. 그 뒤 여러 차례 벼슬을 사양하다가 1546년(명종 1)에 다시 상호군(上護軍)에 나아가 곧 동지중추관사가 되어 《중종실록》·《인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자헌대부로 승진해 지중추부사·한성부판윤·형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550년 우참찬에 임명되어 지경연의금추추관사와 오위도총부도총관을 겸하였다. 이듬해에는 경기도관찰사를 겸임했고 승록대부로 올랐다. 1552년에 우참찬을 비롯하여 호조판서·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하였다. 1554년에 지중추부사로 있다가 죽었다. 30여 년의 관리 생활에서도 집 한 칸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청렴결백해 그의 나이 56세인 1547년 4월과 61세인 1551년 11월 2번이나 청백리에 뽑혔다.

박수량은 자신이 맡은 일 처리가 매우 정밀하고 자세했으며, 청백(清白)함이 더욱 세상에 드러났으며, 세상의 모범이 될 만했다. 당시 권력 실세였던 영의정 이기(李諱)의 측근인 광주목사 임구령은 이기의 비호를 등에 업고 온갖 악행을 자행하였다. 비행을 조사하기 위해 나온 관리는 관련되는 아전을 불러 온갖 방법으로 힐책하여 죄를 밝히려고 했다. 하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았다. 임구령이 아전을 협박하여 사실대로 고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에 분개한 박수량은 임금에게 임구령의 파직을 상소했던 것이다. 당시 관리들은 비리를 알면서도 조정의 실세인 이기(李諱)의 눈 밖에 나서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사실을 숨기고 임금에게 아뢰지 않았고, 오직 박수량만이 사실대로 아뢰었던 것이다. 대부분 관리들은 자신의 이해득실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권력자에게 아부하거나 복지부동(伏地不動)하여 잘못을 묵인하기 일췌이다. 하지만 청렴결백하고 의기가 넘쳤던 박수량은 당당하게 불의에 항거했던 것이다. 박수량의 의기 넘치는 행동에 대해 사관은 '박수량만은 유독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라고 칭찬했던 것이다[4].

청렴결백함은 자손의 교육에게까지 이어졌다. 그의 아들이 일찍이 서울에 집을 지으려 하자 그는 꾸짖기를 '나는 본래 시골 태생으로 우연히 임금의 은혜를 입어 이렇게까지 되었지만 너희들이 어찌 서울에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하였으며 그 집도 10여 간이 넘지 않도록 경계하였다. 벼슬이 재상에까지 이르렀지만 그가 죽었을 때 집에는 저축이 조금도 없어서 처첩들이 상여를 따라 고향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으므로 대신이 임금께 계청하여 겨우 장사를 치렀다. 그의 청렴은 천성에서 나온 것이지 학문의 공(功)이 있어서가 아니었다[5].

인종의 스승이었던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가 지은 박수량의 묘비명에는 "벼슬살이 38년에 지위는 재상에 이르면서도 초가삼간 집 한 채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6]. 명종 또한 예조판서를 보내어 박수량의 장례에 제사를 올리게 했으며, '박수량은 안으로는 많은 학덕을

지냈으면서도 겉으로는 항상 부족한 것처럼 하였으며, 집안에는 남은 곡식도 없었으니 박수량의 죽음이 더욱 아깝고 애석하게 여긴다.’는 제문을 보낸다[7].

명종은 그 뒤에 박수량의 청렴결백을 기리기 위해 어명을 내려 서해에서 빗돌을 고르게 한 다음, 그의 무덤에 하사하면서 “박수량의 청렴결백함을 너무나 잘 알면서 비석에다가 새삼스럽게 이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의 청렴함을 잘못 전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하여 비문(碑文) 없이 그대로 세우라고 하였다. 명종이 박수량의 맑은 덕을 알리기 위한 최상의 예우(禮遇)였다.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산 33-1에 있는 박수량의 무덤에 있는 백비(白碑)가 그 비문이다.

2. 이원익(李元翼, 1547[명종2년]~1634[인조12년])

이원익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공려(公勵), 호는 오리(梧里). 한성부 출신. 태종의 아들 익녕군(益寧君) 이치(李鎰)의 4세손이며, 수천군(秀泉君) 이정은(李貞胤)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청기수(靑杞守) 이표(李彪)이고, 아버지는 함천정(咸川正) 이억재(李億載)이며, 어머니는 감찰 정치(鄭繼)의 딸이다. 강서(姜緒)·조충남(趙忠男) 등과 교류하였다. 키가 작아 키 작은 재상으로 널리 불렸다.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은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여섯 번이나 영의정을 지내고 청백리에 뽑힌 인물이다. 관리로서 실무 능력은 물론 인품, 도덕성, 청렴성까지 두루 갖춘 인물이기도 했다. 이원익의 청렴결백함은 “이원익은 몸가짐이 청렴하고 검소하였으며 나 오나 물러가나 나라를 걱정하였다.”라는 사관의 평가에서도 엿볼 수 있다[8].

이덕형은 이원익의 충심과 근신함을 칭찬하였으며 [9], 정엽(鄭曄) 또한 조에게 아뢰는 내용에서 ‘이원익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몸가짐을 청백하게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10].

청렴결백을 몸소 실천했던 이원익은 임금이 먼저 절약과 검소에 모범을 보여야 백성들도 따를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임금이 절검한다면 재상이 본받고 사민(士民)도 본받아

서 사치의 풍습이 저절로 점차 고쳐질 것입니다. 이를 힘 쓰지 않고 구구히 금단만 한다는 것은 역시 말단의 수단입니다[11].

관리로서 실무능력은 황해도 안주 목사 부임에서 드러났다. 당시 안주는 탐관오리의 수탈로 민심이 흉흉한 지역이었다. 이를 안 벼슬아치들은 핑계를 대어 부임을 하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이원익을 안주 목사로 천거하였다. 안주 목사로 부임했던 이원익은 들판에 굶어 죽은 주검이 가득한 것을 목격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원익은 해주 감영으로 달려가서 해주 감사에게 곡물을 청하여 굶주린 백성을 먹이고 파종을 하도록 하고 안주 땅에 처음으로 뽕나무를 심어 백성의 살림을 윤택하게 했다. 그 결과 안주에서는 간사한 자가 사라지고 해악이 없어져서 백성의 삶이 안정되었으며, 백성들이 모두 이원익의 공을 칭송했다[12].

이원익이 안주목사를 지낸 이후 부임한 목민관에 대해 잘하고 못하고를 얘기할 때 “앞서 이(李) 어른이 있었다”라고 하여 좋은 목민관의 기준으로 그 이름이 백성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원익이 얼마나 민심을 얻었는지는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임금이 피신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원익을 평안도관찰사로 삼아 먼저 파견한 일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전란 속에서 임금이 안전하게 행차할 준비를 하기에 가장 적임일 만큼 이원익은 안주 지역은 물론 평안도 전체에서 신망을 얻은 목민관이었던 것이다.

선조 때는 임진왜란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했다. 평양이 함락당한 후 정주(定州)로 가서 군졸을 모집하고 관찰사 겸 순찰사가 되어 왜군 토벌에 공(功)을 세우기도 했다.

광해군 즉위 후 대동법을 시행해 백성들의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했다. 남인이었지만 혼란한 정국 안정의 적임자였기 때문에 서인 정권이 수립된 1623년 인조반정 후에도 바로 영의정에 임명되었다. 당시 사람의 공감대를 얻었다는 사실은 이정암(李廷菴)이 선조에게 아뢰는 ‘이원익은 국가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처사에도 매우 능했다.’는 말에서도 그의 인품과 도덕성을 엿볼 수 있다[13].

1627년 정묘호란 때는 80대의 고령임에도 관직에

나가는 등 이원익은 최후까지 공직에서 활동한 '영원한 현역'이었다. 평생을 국가와 백성을 위해 살아갔지만 정작 자신은 초라한 초가에서 살았던 그의 삶은 압축적인 그의 전기인 실록의 줄기(卒記)에 다음과 같이 잘 표현되어 있다.

원익은 강명하고 정직한 위인이고 몸가짐이 깨끗했다. 여러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였는데 치적(治績)이 제일 훌륭하다고 일컬어졌고, 관서(關西)에 두 번 부임했는데 서도 백성들이 공경하고 애모하여 사당을 세우고 제사하였다. 선조조(宣祖朝) 때 내직으로 들어와 재상이 되었지만 얼마 안 되어 면직되었고 광해군 초기에 다시 재상이 되었으나 정사가 어지러운 것을 보고 사직하고 여주(驪州)에 물러가 있었으므로 임해(臨海), 영창(永昌)의 옥사(獄事)에 모두 간여되지 않았다. 적신 이이첨(李爾瞻) 등이 모후(母后)를 폐하려 하자, 원익이 광해에게 소장을 올려 자전계 효성을 다할 것을 청하니, 광해가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효성을 다하지 못한 일이 없는데 원익이 어찌 감히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어 군부(君父)의 죄안(罪案)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마침내 홍천(洪川)으로 귀양 보냈는데, 대체로 그의 명망을 중하게 여겨 심한 형벌을 가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인조가 반정(反正)하고 나서 맨 먼저 그를 천거하여 재상으로 삼고 매우 위임하였다. 그리고 그가 연로하였으므로 임금이 국가에 공이 많은 늙은 신하에게 주는 안석과 지팡이인 궤장(几杖)을 하사하여 편안하게 하였고 또 흰 요와 흰 옷을 하사하여 그의 검소한 것을 표창하였다. 갑자년 변란(1624년 이괄의 난) 때 체찰사(體察使)로서 공주(公州)까지 호가(扈駕)하였고, 정묘년 난리(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총독 군문(總督軍門)으로서 세자를 전주까지 배행하였는데, 조야가 모두 그를 믿었다. 원익이 늙어서 직무를 맡을 수 없게 되자 바로 치사하고 금천(衿川·현재의 광명)에 돌아가 비바람도 가리지 못하는 몇 칸의 초가집에 살면서 떨어진 것에 베옷을 입고 쓸쓸히 혼자 지냈으므로 보는 이들이 그가 재상인 줄 알지 못했다. 이때에 죽으니, 나이 87세였다 [14].

이원익은 충직하고 청백한 사람으로 정승으로 들어가 나라 전체의 매우 두터운 명성과 신망을 받았다. 광해군 때에는 임해군의 옥사 때 맨 먼저 은혜를 온전히

하는 의리를 개진하였고, 인목 대비를 폐위하려 한다는 폐모론이 한창일 때에 또 광해군에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극진히 하는 도리를 극력 피력하면서 인목 대비의 폐위를 반대하였다. 이 일 때문에 이원익은 5년 동안 홍천(洪川)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여주로 옮겨지는 고초를 겪게 되었다. 인조는 반정 성공 후 승지를 보내 재촉해 불러왔는데, 그가 도성으로 들어오는 날 도성 백성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맞이하였다고 한다 [15].

임금에게 직언을 올리는 것은 인조 때에도 이어졌다. 당시 인목대비를 비롯한 인조반정의 공신들은 광해군을 죽이고자 하였다. 광해군에게 인목 대비 폐위를 주장했다가 유배 간 그였지만, 천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반대했던 것이다. 그 결과 광해군은 목숨을 보전하여 제주도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었다. 젊었을 때부터 욕심이 없고 담백한 삶을 살았던 [16], 이원익은 영의정으로 재임 중에도 견여(肩輿)를 타고 입조하라는 인조의 명령을 사양하기도 했다 [17].

인조가 이원익에게 흰 요와 흰 옷을 하사한 것은 귀한 요와 화려한 옷을 내렸으면 청렴한 이원익이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원익의 성품은 인조가 '청렴결백한 덕이 비교할 수 없으므로 내가 충심(衷心)으로 기뻐하며 성심(誠心)을 다하여 따랐고 신임하였고 중시하였다'는 회고에서도 잘 알 수 있다 [18]. 신하의 청렴함이 임금의 마음까지 감동하게 했던 것이다.

3. 정약용(丁若鏞, 1762[영조 38]~1836[헌종 2])

정약용의 자는 미용(美鏞)이고, 호는 다산(茶山)·사암(俟菴)·여유당(與猶堂)·채산(菜山)으로도 알려져 있다. 근기(近畿) 남인 가문 출신으로, 나이 28세가 되던 1789년 정월 27일 문과에 급제한다. 과거 급제 후 정약용은 과거 합격의 기쁨과 관리로서 포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임금 앞에서 보는 시험 몇 차례 응시했다가
마침내 포의 벗는 영광을 얻었네.
하늘이 끼친 조화 길기도 하니

미물이 날고 사람을 두텁게 입었네.
 둔하고 졸렬하여 임무 수행 어렵겠지만
 공정과 청렴으로 정성 바치기 원하노라.
 격려 아까지 않으신 임금님 말씀
 그런대로 아버지 마음 위로되었네[19].

이 시는 문과에 급제한 후 희정당(熙政堂)에서 임금을 뵈고 물러난 후 지은 시이다. 이 시에서 정약용은 과거 합격 후 기쁨과 함께 관리로서 '공정과 청렴, 지극한 정성으로 관리로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자신이 약속한 대로 정약용은 여러 벼슬을 거쳐 1794년 11월 경기도 암행어사로 보름간 적성(積城)·마전(麻田)·연천(漣川)·삭녕(朔寧)의 네 개 고을을 시찰한 후 마음대로 환곡을 나누어주고 재결을 도둑질해 먹은 연천의 전 현감 김양직(金養直)과 화전(火田)에 지나치게 세를 물리고 지방 수령의 자문·보좌를 위해 향반들이 조직한 향청의 향임들에게 뇌물을 받아 먹었던 삭녕의 전 군수 강명길(康命吉)을 처벌하도록 주장하였다[20].

1797년 황해도 곡산부사로 제수되어 겨울에 곡산의 좁쌀, 콩을 돈으로 바꾸어 올리라는 명령을 철회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허락을 받기도 했고 1799년 5월에는 형조참의에 제수되어 형사사건을 엄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억울한 죄수가 없도록 온갖 지성을 바쳤으며 이 때 경험을 살려 『흙흙신서(欽欽新書)』라는 형법을 다룬 서적을 저술하기도 했다. 1801년 천주교도라는 누명을 쓰고 18년간 유배 생활을 한다. 유배 기간 동안 정약용은 곡산 부사 등 직접 목민관으로 경험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목민관이 실천해야 할 도덕성과 청렴의 도리를 기록한 『목민심서(牧民心書)』를 저술하기도 했다. 『목민심서』는 목민관에 임명돼 행장을 꾸릴 시점부터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제도에 따라 지방행정의 시행을 위한 실무방침을 기록한 육전(六典)을 수록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 「율기육조(律己六條)」 청심(淸心)편에서 청렴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청렴은 목민관의 의무이다.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

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 노릇을 할 수 있었던 자는 없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21].

정약용은 위정자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였다. 일찍이 『論語』 「子路」편에서 공자가 말한 '자기 몸의 처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지만, 자기 몸의 처신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한다 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위정자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자기 몸의 처신이 바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는 의미이다. 위정자가 백성을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해결하고, 좋은 일은 백성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눌 것이다. 백성을 위하는 위정자의 솔선수범을 보게 되면 진심에서 우리나라와 따르게 될 것이고, 일일이 명령을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할 것이다. 반대로 위정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 일을 시켜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목민관이 탐욕스럽고 백성들에게 오만방자하면 그 아래 아전들도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 급급하게 되고, 백성 대하기를 짐승 대하듯이 하게 된다. 그 결과 백성들은 마음의 상처와 위정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된다. 사물의 이치와 백성들의 마음을 잘 파악했던 정약용은 올바른 목민관이 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덕목은 청렴이며, 청렴한 마음이짐으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지극 정성으로 백성을 대해야만 백성이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따를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순조 1년(1801), 정약용의 나이 40세 때 시작된 유배 생활은 순조17년(1818) 그의 나이 56세가 될 때까지 16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타지에서의 유배생활의 쓰라림은 매우 컸고, 유배생활에 시달리는 아버지를 보다 못한 정약용의 큰아들 정학연(鄭學淵)은 편지를 보내 판서로 있는 사촌 처남 홍의호(洪義浩)와 아버님의 석방을 막고 있는 대감에게 용서를 구하신다면 유배에서 풀려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정약용은 단호히 이를 거절하는 내용을 자신의 아들에게 보냈다고 한다[22].

정약용은 불의와 타협하는 비굴한 삶을 살기보다는 신념을 지키면서 유배 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아들에게 알리고 16년 유배 생활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모진 유배 생활이었지만, 정약용은 오히려 학자로서 학문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

III. 전통적 청렴 사례를 통한 현대 공직 청렴 교육 시사점

우리 한국의 전통 인물 중에서 청백리 사례는 많이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조선시대 초기, 중기, 후기의 대표적인 인물로 각각 박수량, 이원익, 정약용을 선별하게 되었다. 이들의 청백리 사상을 교차 비교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어서, 여기서는 그들의 시대사적인 공간 속에서 청백리 정신을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국한해서 현대 공직 청렴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박수량의 사례와 시사점

우선 박수량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학문을 지극히 사랑했다. 효성이 지극하였다. 벼슬살이 38년 동안 초가삼간 집 한 채가 없었고, 그가 죽자 가족들이 초상을 치루지 못하여 임금이 장례비를 하사하였을 정도였다. 임금은 그의 묘지에 어떤 글자도 새기지 않은 백비를 세워 후손들에게 그의 청백사상을 추모하게 했다.

현대 도덕성의 측면에서 볼 때, 공사 구분이 명확했고, 작은 일과 큰 일에 있어서 수미일관되는 덕성을 보였다. 그의 아들이 집을 장만하고자 했을 때 가난한 집안의 내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타이르기도 했다. 그의 덕은 어떤 도덕적 갈등 상황 속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했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집안에서는 효자이면서 밖으로는 충직한 신하였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그는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로의 도덕성을 지향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명확한 도덕적 잣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몇 번의 높은 벼슬을 제안 받았지만 자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양했다. 무엇보다도 박수량은 자신이 세운 도덕적 기준 속에 청렴을 중요하게 설정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청렴의 도덕성을 발휘한 인물로 수용될 수 있다고 본다.

박수량의 사례는 그의 백비가 증명하듯이 재부를 축적하는 데 큰 욕심이 없었으며,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높은 관직을 사양했다는 시사점을 준다.

2. 이원익의 사례와 시사점

이원익은 여섯 번이나 영의정을 지냈으면서 몇 칸의 초가집에서 청빈한 삶을 살아간 공직자였다. 그의 삶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울림을 주고 있다. 그는 왕족이면서도 드물게 공직에 나아가 큰 공을 세웠다. 특히 혁명으로 임금을 교체하는 와중의 첨예한 당파 싸움 속에서도 거중 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고, 단기적인 호구지책으로 백성들의 환심을 사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서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이원익의 공평무사하고 청렴한 인품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주변인물들로부터 큰 환대를 받았다. 현대 도덕성의 측면에서 볼 때, 광해군에게 인륜에 벗어난다는 이유로 인목 대비 폐위 반대를 주장하다 유배를 당했고, 또 인조 반정 후 폐위된 광해군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점은 그의 도덕적 실천력이 얼마나 강직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87세로 생을 마감할 때도 그는 다 떨어진 갖과 벼옷을 입었던 점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자율적 도덕적 준칙을 중시한 높은 덕성을 구비한 인물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원익의 사례는 나라의 전란과 혁명으로 인한 임금의 교체 시기에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아 국체를 보전하는 데 큰 시사점을 준다. 그러한 힘은 바로 그가 합리적인 사고를 했으며, 무엇보다 청빈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된다. 또한 그는 남의 이목보다는 자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청백리였다.

3. 정약용의 사례와 시사점

정약용은 18세기말부터 19세기 초반의 격동의 조선을 살았다. 다른 청백리들이 나라의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기울어가는 시기를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큰 고민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약용의 경우

시대정신을 놓고 깊은 고민을 했다는 점에서 다른 청백리와 시대적 배경은 차이가 났다. 정약용 사상의 출발점은 현실 개혁을 추구하는 실학에서 찾을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혁을 주장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반대세력이 있었다. 정약용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면서 현실의 개혁을 끊임없이 주장했으며,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수많은 저술로 남겼다. 공부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숭선수범으로 보인 것이다. 청백리로서 숭선수범은 자신의 유배 생활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 지인에게 청탁할 것을 건의하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꾸지람하는 부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정약용의 굳건한 도덕적 신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정약용의 사례는 서양 문물의 유입이라는 격변 속에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학문적 지혜를 통해 나라와 백성의 삶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표본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 청백리인 박수량, 이원익, 정약용의 사례를 통해 현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을 두고 살펴보았다. 소박하고 검소했던 세 명의 청백리가 오늘날 청렴 교육에 시사해주는 점은 공직자의 청렴 실천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국가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에 교육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직자들이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공정하게 주어진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고, 그 결과 국가는 자연스럽게 발전한다. 여기서 청렴(清廉)하다는 것은 성품과 행실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청렴의 전통은 주변으로 확산되고 후손으로 이어질 때 효과가 배가된다. 그 어떤 전통도 구성원의 노력없이 이어지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박수량, 이원익, 정약용은 모두 자신의 처지가 풍족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김 족적은 지대하다. 그들은 자신의 안일과 같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의 일들에 대

해서는 덜 중히 여기고 국가의 존망과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는 지극히 중히 여기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교육이 기획되어야 한다.

* 이 연구는 다음의 정책연구보고서 중 일부를 발전시킨 것이다. 박균열·이상호, 『공직자 청렴판단력 측정도구 개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2016.

참고 문헌

- [1] *한국민족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2] 이서행, *청백리정신과 공직윤리*, 인간사랑, 1990.
- [3] 최한섭 외, *조선시대 청백리 열전*, 한울출판사, 2013.
- [4] *朝鮮王朝實錄(明宗實錄)*, 明宗 7년 2월 29일 辛巳 1번째 기사: 史臣曰 守良 名臣也. 自少不趨權門 廉潔自守 位至六卿 儼屋以居. 己之私伴 遍諸八道 而爲方伯者 例皆隱蔽 不以實啓. 守良獨不然 時議嘉之.
- [5] *朝鮮王朝實錄(明宗實錄)*, 16권 明宗 9년 1월 19일 庚申 2번째 기사: 守良 湖南人也 起自草萊 歷數華秩 爲親屢乞外補. 處事極其精詳 而清白尤著於世. 其子嘗欲作第於京 讓之曰 我本鄉產 偶蒙聖恩 得至於此. 汝輩安得作第於京乎 且戒其家毋過十餘架. 中廟朝特加以褒之 位至六卿 其卒也 家無甌石之儲 妻妾不得從喪南歸 大臣啓請 僅得喪事. 雖無德望 有所建明 清白一節 亦足爲範於世也. 然清之過多 有急促之失. 蓋其清出於天性 而非有學問之功也.
- [6] 金麟厚, *資憲大夫 議政府右參贊朴公墓誌銘*. 立朝三十有八年 以至卿相 無數椽之宅.
- [7]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국조인물고*, 9, 2002.
- [8] *朝鮮王朝實錄(宣祖實錄)*, 182권, 선조 37년 12월 6일 신해 4번째 기사: 元翼 淸素持身 進退憂國.
- [9] *朝鮮王朝實錄(宣祖實錄)*, 147권, 宣祖 35년 윤2월 9일 壬寅 2번째 기사: 赤心素筋 不如李元翼.
- [10] *朝鮮王朝實錄(仁祖實錄)*, 2권, 인조 1년 7월 6일 甲午 1번째 기사: 曄曰 李元翼勤勞國事 律已清白.
- [11] *朝鮮王朝實錄(宣祖實錄)*, 147권, 宣祖 35년 윤2월 9일 壬寅 2번째 기사: 人君節儉 則宰相效之 士民效之 侈習自可漸革. 不此之務 而徒區區於禁斷 亦未矣.
- [1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국조인물고*, 22, 2005.

- [13] *朝鮮王朝實錄(宣祖實錄)*, 83권, 宣祖 29년 12월 19일
 辛巳 2번째 기사: 都體察使李元翼 一心徇國 善於施措.
- [14] *朝鮮王朝實錄(仁祖實錄)*, 29권, 仁祖 12년 1월 29일
 丙辰 1번째 기사: 前議政府領議政完平府院君 李元翼
 卒. 元翼爲人剛正, 律身清苦. 歷典州郡, 以治最聞, 再按關
 西, 西民敬而愛之, 立祠宇以祀之. 宣祖朝入相, 未幾免. 光
 海初, 復入相, 見政亂解職, 退居于驪州, 臨海, 永昌之獄,
 俱不染迹. 賊臣爾瞻等欲廢母后, 元翼抗章請光海盡孝於
 慈殿, 光海大怒曰: “我無不盡孝之事, 元翼何敢做出無根
 之語, 爲君父罪案乎?” 遂貶于洪川縣, 蓋重其名, 不敢加
 以威刑也. 及上之反正, 首舉爲相, 甚委任之. 以年老, 賜几
 杖以安之, 又賜素褥, 素衣, 以表其儉. 甲子之變, 以體察使
 扈駕于公州, 丁卯之難, 以總督軍門, 陪世子于全州, 朝野
 皆倚重焉. 元翼既不能任職事, 乃告老退歸衿川, 處數間茅
 屋, 不蔽風雨, 弊冠布衣, 蕭然自遣, 見之者不知爲宰相
 也. 至是卒, 年八十七.
- [15] *朝鮮王朝實錄(仁祖實錄)*, 1권, 仁祖 1년 3월 16일 丙
 午 5번째 기사: 元翼忠貞清白 自先朝入相 負一國重望.
 昏朝臨海之獄 首陳全恩之義. 廢論方張之初 又上箚 極陳
 盡孝之道 兇徒深嫉之 幾不得保 謫洪川五年 放歸田里.
 至是 復拜首揆 朝野相慶. 上遣承旨趣召 入城之日 都民
 加額以迎..
- [16] *朝鮮王朝實錄(宣祖實錄)*, 109권, 宣祖 32년 2월 6일
 丙辰 1번째 기사: 元翼少時恬淡.
- [17] *朝鮮王朝實錄(仁祖實錄)*, 10권, 仁祖 3년 9월 17일
 壬戌 1번째 기사: 領議政李元翼 上箚辭肩輿入朝之命.
- [18] *朝鮮王朝實錄(仁祖實錄)*, 29권, 仁祖 12년 2월 13일
 庚午 2번째 기사: 下教于政院曰: 李領府事 以先朝元老
 清德無比 孤心悅誠服 信之如龜筮 重之如鍾鼎.
- [19] *茶山詩文集*, 제1권, 正月廿七日賜第: 正月廿七日賜第
 熙政堂上謁 退而有作: 屢應臨軒試 終紆釋褐榮 上天深造
 化 微物厚生成 鈍拙難充使 公廉願效誠 玉音多激勵 頗慰
 老親情.
- [20] *朝鮮王朝實錄(正祖實錄)*, 41권, 正祖 18년 11월 16일
 庚子 1번째 기사: 積城 麻田 漣川 朔寧御史丁若鏞 ...
 ... 積城 麻田 漣川 朔寧四邑御史丁若鏞書啓曰 漣川前縣
 監金養直擅分還穀 偷食災結 其罪狀 令攸司稟處. 朔寧前
 郡守康命吉火田濫稅 鄉任納賂 遞移雖久 不可無罪.
- [21] *牧民心書(律己六條)*, 清心: 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
 德之根. 不廉而能牧者 未之有也.
- [22] 박석무, *다산 정약용 평전*, 서울: 민음사, 2014.

저 자 소 개

이 상 호(Sang-Ho Lee)

정회원



- 1989년 2월 : 경상대학교 윤리교육
과(문학사)
- 1996년 2월 : 경상대학교 윤리교육
학과(교육학석사)
- 2003년 8월 : 경상대학교 윤리교육
학과(문학박사)
- 현재 : 경상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동양윤리교육론, 유교윤리, 불교윤리

박 균 열(Gyun-Yeol Park)

정회원



- 1989년 2월 : 경상대학교 윤리교육
과(문학사)
- 1994년 8월 : 서울대학교 윤리교육
학과(교육학석사)
- 2000년 2월 : 서울대학교 윤리교육
학과(교육학박사)
- 현재 : 경상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위원

<관심분야> : 도덕성 측정, AI윤리, 정치윤리